

# 금융위 '위험요인 대응' 최우선

###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 선정 임종룡 "금융 방파제·민생안정 매진... 핵심과제 속도 있게 추진"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정책 추진방향 중 첫번째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도 추진해 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설문조사와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 결과다. 조사결과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 ◇가계부채·구조조정 등 위험요인 대응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질서 확립 등을 4대 과제로 설정했다. 정책금융기관에 모두 186조7000억원의 역대 최고액을 공급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값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주는 관행의 정착'이 중심이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자율지표로 활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 핵심이다. 신속하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새 출범을 앞둔 파산법원과 '프리 패키지드 플랜'(PPP)을 논의한다. 또 회계제도 개편과 기관투자자의 의견결집 행사규준(스튜어디스 코드) 확산 등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LG전자가 공개한 전략 제품

LG전자가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 개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 스마트 냉장고를 관심을 받고 있다.

#### ◇금리인상 우려... 민생안정 위한 금융지원 확대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금융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강화, 취약차주 보호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세부 목표를 세웠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들의 임차보증금전용 저리 대출을 출시하고 성실상환자에게 취업도 연계해줄 방침이다. 사잇돌대출 공급도 2조원으로 늘리고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위기

가 발생한 차주에게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연체이자 부과체계의 합리화 작업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 ◇경제활력 제고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등을 진행한다.

2단계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선제적 준비 작업도 진행한다.

페이먼트와 머카운트인포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금융개혁 상시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분 방과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며 "핵심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지난해 채권시장 일평균 거래액 13조원

### 전년 대비 83% 성장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장내 채권시장이 13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거래소 채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3조990억원으로 전년(7조1070억원) 대비 83% 성장했다. 5년 전인 2011년(3조2870억원) 비교하면 4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국채전문 유통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12조691억원으로 전년(6조8250억원) 대비 85.95%나 늘었다. 소액채권 시장(2940억원)은 15.75%,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시장(2610억원)은 158.42%씩 거래 규모가 확대됐다. 반면 일반 채권시장 거래량은 240억원으로 14.29% 줄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해 채권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협의상대매매 도입, 호가가 격 단위 세분화, 스트립 조성 등 시장 편의 제고를 위한 신(新) 제도를 도입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채권 금리는 미국 금리인상, 국내외 재정확대 기대 등에 따라 4분기 들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분기 1.787%에서 2분기 1.468%, 3분기 1.401%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4분기 2.058%로 반등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안정적인 시장 관리와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선진화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결과 속 다른' 나노 다공성 물질 합성법 개발

### 울산과학기술원 최원영 교수팀 "내부 구조 정교하게 합성 가능"

국내 연구팀이 1나노(10억분의 1m) 크기의 미세 구멍 속 내부 구조를 자유자재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나노 구멍의 결과 속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어 촉매나 기체 저장, 약물전달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자연과학부의 최원영 교수팀이 나노 다공성 물질의 내부 구조를 손쉽게 만드는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존에도 금속 계열의 나노물질의 결과 속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기술은 있었다. 하지만 다공성 물질의 내부 구조를 조절하는 기술은 이번이 처음 보고됐다.

최원영 교수는 "다공성 물질의 구멍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내부 구조를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다공성 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촉매나 기체 포집물질 등으로 활용도가 높다.

지금까지는 '제올라이트(zeolite)'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공성 물질이 주로 이용됐는데, 구멍 크기와 모양을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학자들은 유기분자와 금속을 이용해 스스로 조립되는 다공성 물질

을 개발했다.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s)'와 '금속-유기 다면체(Metal-Organic Polyhedral, MOPs)'가 대표적이다.

둘 모두 구멍이 송송 뚫린 물질인데, MOPs는 용매에 잘 녹고 MOFs는 쉽게 녹지 않는 성질이 있다.

최 교수팀은 우선 MOPs를 합성한 뒤 유기물을 더해서 아몬드 초콜릿처럼 결과 속이 다른 물질로 딱한 '코어-셸 구조'를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용매를 써서 MOPs를 녹이면 가운데가 빈 '싱글-셸 중공구조'를 얻을 수 있다.

최원영 교수는 "하나의 결정에 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을 공존시키는 게 큰 특징"이라며 "구멍의 크기와 모양도 조절할 수 있어 분자의 출입을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합성법으로는 2nm 미만의 미세기공과 2~50nm의 메조기공, 50nm보다 큰 거대기공이 모두 존재하는 새로운 다공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곽지훈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는 "이번 결과는 에너지 연구에 필요한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며 "나노입자와 결합된 이종 물질을 합성하는 등 나노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는 2017년 1월 4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뉴시스

## 실적 불구 '추풍낙엽' 화장품株, 빨까 살까

### 사드 영향 지속 올해도 가파르게 하락... 불안 국면 지속-저점 찍어 분석 엇갈려

화장품사 주가가 지난해 7월 발표된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화장품 주가와 실적이 향후 불안한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과 바닥을 지킨다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장품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지난 4일 31만1000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LG생활건강(85만1000원) -0.7%, 아모레G(12만7000원) -4.5%, 코스맥스(11만7500원) -1.7%, 한국콜마(6만

2500원) -5.0%의 등락률을 기록했다. 화장품사의 지난해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면서도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집계한 결과 화장품 시총 상위 5개사의 지난해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비 42.1% 2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4분기와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9.8%, 17.4%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LG생활건강(20.5%·28.3%), 아모레G(38.5%·28.7%), 코스맥스(91.1%·46.4%), 한국콜마(30.6%·17.9%) 등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목표주가가 우호적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목표주가 평균은 아모레퍼시픽 43만7760원, LG생활건강 109만6400원, 아모레G 18만6526원, 코스맥스 16만5476원, 한국콜마 10만3688원 등으로 현 주가를 웃돈다.

사드 정국이 이어지면서 화장품 주식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NH투자증권 한국희 연구원은 "향후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며 "본격 매수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원은 "당분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

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하나금융투자는 화장품 주가가 바닥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은 "변세점 채널은 불확실성 하에 있으나 한국 화장품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전년동기비 1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드 배치 이슈는 1년 이내 소멸할 가능성이 크며 사드 배치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또 "사드 배치 우려는 정점을 지나고 있고 우려 대비 매출은 양호하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게 줄었다"며 "주당순이익(EPS) 상승에 의해 주가가 완전히 회복될 것임에 따라 아모레G, 한국콜마를 중심으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구독신청 288-9700

www.jbbank.co.kr

# Viva 2017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고객님의 2017년 한 해가  
눈부시게 빛나시길 기원합니다